

시편 103(102), 1-2. 3-4. 6-7. 8과 11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 - 그 러우 시 네.

1. 내 영혼아, 찬미하 여 라. 내 안의 거룩하신  
주님을 모든 것도 그이름 찬미하여 라.
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 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 는 분.

3. 주 님은 정의를 펼치 시 고 억 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 시 네.

4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 며 분 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 네.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그 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라.  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 고 자 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 는 분.  
당 신의 길을 모세 에 게, 당 신의 업적을 알리 셧 네.  
이스라엘 자손에게  
하 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 처 럼 당 신을 자애가 넘치시 네.  
경외하는 이에게